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4차	일자	2021.08.16.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X	○	11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임시 간학대회 종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13일 금요일에 사범대학 담당건물 불법카메라 탐지조사 완료.
사회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약학대학	2학기 행사 진행 관련 논의 완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학사개선요구 및 등록금환불요구 공문 송부, 관련 내용 안성과 논의 진행.
- ZEPETO 캠퍼스 제작팀: 집행부 인원으로 구성하여 정문 구역 일부 구축 계획
- 추후 장학제도 개정 관련 전체내용 보고 진행 계획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기획 중
(교육자치)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바로잡기 진행 완료
(연대사업) 비건 학식 도입 관련 유관부처 협의 중 비건 레시피 공모전 당첨자 선정 완료
(일상복지) 불법카메라 탐지 진행 중

산하위원회
(인권복지)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진행 중

의혈지킴이 진행 중 비건 학식 도입 관련 유관부처 협의 중
(장애인권) 배리어프리지도 디자인 작업 중 배리어프리 공지 가이드라인 추가 작업 진행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협의체 구성 완료
(졸업준비) 취업 사진 관련 외부 업체 제휴 완료

3 논의안건

1. 중앙감사위원장 재선발 논의

- 신규 모집 시행
- 중감위원장 사퇴서 확인
- 기간 확정

부총: 사퇴서는 카톡방에 이미 올려드렸고 8/10부로 사퇴처리 됐다. 사퇴 공고 같은 경우는 중감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오늘 중운위에서는 모집 시기정도 논의하고 마치면 될 것 같다.

인문.정: 지난번 중감위원장 재선발할 때 모집공고가 올라가는 날로부터 10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받고 중운위 면접을 실시했던 걸로 기억 하는데 이번도 이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은지?

부총: 네 비슷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운위 정기회의가 월요일에 있어서 일요일까지 서류를 제출받고 월요일 중운위 회의를 활용해서 면접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말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해당 내용 동의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다른 단위도 동의 혹은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란다.

동연.부: 동연 부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말씀해주신 일정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부총: 네 감사하다. 지난 모집 진행한걸 보니까 서류제출, 면접,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한 것 같다. 면접은 월요일에 하면 될 것 같고 서류제출은 그 전날인 일요일 6시까지 받도록 하고 결과발표는 중운위 면접 후에 다음 날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 이의 있으신 단위는 의견 말해주시기 바란다. 없으면 넘어가겠다. 혹시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장학제도 개정 논의

-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 공유
-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레인보우시스템, 다빈치인증제도

부총: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논의 했었고 중운위에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던 성적과 비교과를 합산하는 장학금 신설에 같은 의견이며 다만 성적 반영비율이 최대화 돼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다. 또 주무부서 논의를 거쳐서 교내 비교과 관련한 기준 및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레인보우시스템 내에 관련 항목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였다. 첫 번째는 비교과 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데 보시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서 분야를 분류를 해놓았고 분야별로 비교과 관련 활동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나열된 활동마다 일정정도의 마일리지가 부여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활동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 다음 연계되는 것은 다빈치인증제 라는 활동을 레인보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과 비교과 활동 내용을 전반적으로 합산을 한 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에 다빈치 인증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다. 현재 별도의 관련한 금액지급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해당 인증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마일리지도 계산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 1분 정도만 해당 화면 본 후에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내용은 확인 하신 것 같다. 일단 먼저 비교과 역량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있는 제도는 어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에 관련된 자격증, 비교과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까지 전부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장학제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하게끔 저희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봤는데 이 기존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장학제도를 신설하게끔 내용을 짤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산입해서 하게끔 요구를 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혹시 지금 안건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좋다.

간호.정: 혹시 총 측에서 준비 해오신 방향이라든가 그 정도가 있는지?

부총: 집행부에서는 저번 중운위 회의와 동일하게 전체적인 방향성만 논의했고 지금 제시해드린 비교과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간호.정: 중운위 단위로써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이 어떤지를 먼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부총: 사실 저도 총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집행부랑 논의가 먼저 필요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당장에 의견 말씀하시거나 평가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 집행부랑 세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좀 주시고 다음 주에 안건 다시 진행하는 걸로 넘기는 건 어떨까 하는데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학 의견으로는 저희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하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제도 개정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러진 않은지?

부총: 그건 제가 주무부서에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사과.정: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은 이해를 했고 저번 중운위 회의에서 사실 복지장학금 신설 및 확충과 비교과 장학금 신설 및 확충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중운위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중운위 각 단위의 의견이 한차례 더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중운위 내에 있는 단과대 단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부총: 사실 저번에는 단위별로 말씀을 해주실 때는 대개는 성적+비교과나 신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주셔서 해당 내용은 따로 논의를 안했는데 지금 제안을 주셨으니까 제가 단위별로 한 번 씩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바로 차례 넘기셔도 된다. 간호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내부 논의 더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부총: 네 알겠다. 경경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도 내부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총: 사범대도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빈치인증제 방금 올려주신 자료 공유해주시면 내일 단운위 내에서 제가 설명하고 조금 안내해도 되는지?

부총: 네 사진은 지금도 드릴 수 있는데 레인보우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동일한 내용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된다.

사범.정: 제가 찾았다. 알겠다.

부총: 네 그럼 사과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말하고 싶은 단위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제 발언으로 각 단위에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사과대 의견 드리면 사과대는 사실 비교과 장학금 신설과 복지 장학금 신설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오갔고 둘중 무엇이 중점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위 내에서 의견 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중운위에서 세 가지 논의 골자를 주셨던 것 같다. 5분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것과 비교과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과 그리고 복지 장학금을 확충해야 하는 것 세 가지 논의 골자를 가지고 중운위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저희 단운위에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5분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비교과 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로는 일단 첫 번째로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장학금을 축소할 만큼 새로운 장학제도 마련에도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장학제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근거로 성적장학금이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는 장학금인 만큼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교과 장학제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복지 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성적장학금을 축소할 배경이 개인의 성취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복지나 생계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의 축소배경을 고려했을 때 복지 장학제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중요성 측면에서는 생계와 개인의 노력 둘 다 인정이 되나 필요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생계에 대한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 장학제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대 내에서 공유했던 각 장학금 신설 근거에 대해서 중운위에서 공유를 하고 중운위 단위와 함께 의견 공유한 다음에 장학제도 신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내에서는 단위 자체적인 의견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운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두 가지 정도의 질의 사항이 생겼는데 첫 번째 질의 사항은 5분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을 한다면 확충 후에 남은 금액이 2.4%, 그러니까 12억분이라고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서 부총학생회장님이 전달해주셨는데 이 12억분의 장학금을 비교과 장학제도와 복지 장학 제도 등 각 장학제도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복지 장학제도가 2학기부터 확충이 된다면 학교 본부는 2학기 복지 장학제도의 초안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부총: 이후부터는 의견이 있는 단위만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질문하신건 제가 회의록 확인하고 문의해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 각 장학금에 배분할 수 있냐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는 것도 저희 논의에 일단 1차적으로 달려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일단 말씀드리면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5분위 확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고 전 단위가 동의를 해줬고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일단 단위별 의견이 통일이 되긴 했는데 일단 인문대학은 복지장학금 확충이라든지 근로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번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성적장학금 축소에 반대하는 학우분들이 60%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성적장학금이 축소된 만큼의 어떠한 양을 다시 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장학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복지장학금 확충이나 근로장학금 확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 대신 성적+비교과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더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대신 이제 이 비교과 장학금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는 오늘 부총학생회장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단운위 내 논의가 필요해보일 것 같다.

부총: 네 감사하다. 더 있으신지?

예술.정: 예술대도 논의를 했었는데 5분위까지 주는 거랑 그리고 성적장학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성적비율을 최대한 많이 따졌으면 좋겠다까지는 논의가 이뤄져서 다 모든 단위가 다 동의를 해줬다. 그리고 복지와 비교과 부분에서 저희 학생 대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약간 예술대학 특성상 이런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아직 많아서 비교과나 복지장학금 관련해서 좀 더 뭔가 자세한 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 바탕으로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총: 네 감사하다. 혹시 또 다른 단위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논의하고 총학의견은 집행부 논의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는 레인보우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모두 있으니까 단위별 논의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3. 신입생 예산 활용 논의

- 단대별 활용 여부 계획 공유
- 전체 계획 수립 기한 논의

부총: 다음은 신입생 예산 활용 논의인데,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길이 잡히는 것 같다. 일단 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은 미집행도 가능하고 21학번 예산에 한해서 동결이 되냐는 문의도 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 두 가지 모두 단위별로 개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았을 때는 이제 추후부터는 아마 단위별로 활용 계획이나 여부를 수립하고 중앙에서는 조정이나 중재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는 단위별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단위별 최종적으로 활용 여부나 계획이 나온 단과대가 있으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다. 간호대부터 여부나 계획 정해진 게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저는 질의가 있는데 중앙에서 조정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쭙 봐도 될지?

부총: 일단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적어둔 것이고, 혹시 상황공유나 아니면 주무부서랑 단위 간 협의하는데 오해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길 경우에만 총학생회장단, 혹은 중앙단위에 중재를 위한 논의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결정은 단위별 의견에 기반하자는 말씀이었다.

간호.정: 주무부서에 문의할 게 있으면 총학 쪽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부총: 제가 주무부서에서 총학이 모아서 달라 혹은 단위별로 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아니라서 그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일단 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결정들은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게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간호.정: 단위 내 교지팀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쭙본 것이고, 우선 저번 주에 임시 단합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21학번보다 20학번 2회 이상 이월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을 때, 20학번 예산을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위 내에서 쓸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21학번 보다는 20학번이 빨리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

부총: 네, 감사하다. 다음 경경대 말씀해달라.

경경.부: 경경대는 우선 예산 활용하여 행사 진행할 예정이고 20학번 예산과 21학번 예산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부총: 네, 사범대 말해주시길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도 20학번 21학번 예산 모두 사용 가능하면 이번에도 저희 학생회에서 20학번 21학번 모두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행사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기념품 정도를 나눠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돕바가 가능하다면 돕바로 할 텐데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상이다.

부총: 네 감사하다. 사과대 말씀해주길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는 20학번 대상 예산과 21학번 대상 예산 모두 우선 올해 내로 예산집행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학번 대상 예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구축이나 도서상품권 전달을 할 수 있다면, 금액권 전달이 된다면 교보문고 5만원권 이런 식으로 금액권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21학번 대상 예산의 경우에도 금액권 전달이 가능하다면 도서상품권 전달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이다.

부총: 감사하다. 약학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약학.정: 저희 일단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21학번 대상으로는 돕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했고 20학번 대상으로도 돕바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20학번 대상으로는 돕바 공구가 이미 진행돼서 이 부분도 지금 논의를 따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행사 사은품 진행 쪽으로 갈 거 같긴 한데, 항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사과대처럼 상품권을 주면 어떨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집행이 가능한지 몰라서 항목에 제한이 있는지 몰라서 교지팀이랑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부총: 감사하다. 예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은 21학번 대상으로 예산 활용하는 거 확정했고 아마 돕바 지원으로 거의 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20학번은 사용할 수 있으면 하자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해서, 그래도 행사 진행은 불가능하고 다른 단과대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기념품이나 그런 걸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부총: 네, 인문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일단은 기존에 기획된 행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행사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0 21학번 모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논의하고 싶었는데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조금 궁금하고, 상품권 지급 쪽으로 저희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후리스나 바람막이, 그리고 무선 마우스 키보드 세트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돌려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주기로 했다.

부총: 네 감사하다. 자과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자연.비: 자연대는 우선 20, 21을 같이 집행할 예정이고, 다른 단과대와 마찬가지로 기념품 키트나 가능하다면 상품권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키트 발송을 1차 계획으로 잡았다. 자세한 것은 교지팀에 문의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키트 같은 경우는 20, 21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볼 계획을 세웠다.

부총: 감사하다. 통일공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공.부: 공대는 저희가 저번 주 단운위에서 얘기했는데 20학번 21학번 예산 모두 받아서 2학기 공대축제 때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굿즈를 배부할 예정이다.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공대 측에서 생각을 한 건 해당 6만원 예산을 모두 받기를 원하고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한 나머지 예산은 학교 측에서 회수를 해 가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이다.

부총: 감사하다. 단위별 계획 모두 공유를 했는데 구체화하실 때 오늘 나온 의견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단위별 최종 계획과 집행여부를 비롯한 최종 계획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예산 관련된 주무부처가 교학지원팀인지 예산팀인지?

부총: 예산팀이다. 교학지원팀은 아마 예산을 지급받은 후, 교학지원팀 같은 경우는 세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는 예산팀이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사범.정: 사범대 질의 있는데 질의 드려도 될지?

부총: 네.

사범.정: 그러면 저희도 협의를 내일부터 바로 진행해도 될지?

부총: 네, 교지팀이랑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사범.정: 네 저희가 예산팀이랑 따로 할 게 있는지?

부총: 아니다. 교지팀이랑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사범.정: 네.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는 아까도 여쭙봤는데 돕바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부총: 단위별로 진행하시는 건 단위 자율이다.

사범.정: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상품권 얘기하셨는데 상품권 되는지?

부총: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예산팀에 물어보겠다.

사범.정: 답변 감사하다.

인문.정: 혹시 상품권 예산팀에 문의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 네,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학.정: 약학대학 질의 있는데, 항목 어떻게, 어떤 거 구매할지에 대한 답변은 예산팀이 해주는 건지? 교지팀과는 굳이 논의를 할 필요 없이?

부총: 아니다. 어떤 걸 배부하는지 조금 더 정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약학.정: 저희도多巴 생각하고 있긴 한데,多巴말고 혹시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면 자세한 것을 여쭙보려고 하는데 교지팀에서 임의로 커트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는 팀이 어딘가 해서 여쭙보았다.

부총: 말씀드리면 예산팀은 일단 돈만 가지고 있고 예산팀이 돈을 각 단위별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은 교지팀이다. 예산팀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은 총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보는 거라서 예산팀이랑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실 일은 없을 것이다.

약학.정: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어떤 것을 하겠다 했을 때 교지팀의 의견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부총: 제가 단위별 분위기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학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생회에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교지팀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계획을 짜신 단계에서 교지팀이랑 협의를 하셔서 확정하시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자연.비: 그러면 예산팀의 상품권 배부 가능 여부를 (오디오 오류)

부총: 끊겨서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혹은 채팅으로 말씀해주셔도 된다.

자연.비: 지금 제 말 들리시는지? 예산팀의 상품권 배부 가능한지 여쭙보신다 했는데 그거를 언제쯤 답변을 받아서 중운위에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 여쭙보았다.

부총: 내일이다.

자연.비: 네 감사하다.

부총: 질의 더 있으면 받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다.

4. 성평등위원장 인준

- 현임 성평등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신규 인준 필요
 - 인준후보자: 현 성평등위원 송지현 (사회학과 19)
- 후보자 청문 진행
- 의결 <사회학과 19 송지현을 2021년도 하반기 성평등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총: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현임 성평등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요청하셔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사퇴 수리 및 신임 위원장 후보자 선발까지 완료를 했고 오늘 중운위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청문과 인준을 진행 할 예정이었다. 이제 후보자 모실 건데 그 전에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받겠다.

인문.정: 혹시 후보자가 지금 들어오실 텐데 그 전에 물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후보자와 관련해서 성평등위원회와 내부 합의가 전부 이뤄진 것인지?

총: 현임 성평등위원장 추천인사이다. 그러니까 내부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부총: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지금 입장하시겠다. 후보자님 화면 켜주시고 제 말씀 들리시는지 답변 바란다.

성평등위원회 인준후보자: 네 들린다.

부총: 네 감사하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먼저 후보자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성평등위원회 인준후보자: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9학번 송지현입니다. 현재 저는 제8대 성평등위원회 연대사업국장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제 7대 성평등위원회 문화홍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림의 뒤를 이어 성평등위원장을 맡고자 합니다. 저는 총학생회 '오늘', 그리고 성평등위원회 '뿌리'와 함께 중앙대학교 학생, 교직원, 노동자라면 모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등한 소통을 이어가는 학생자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학생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 네 소개 감사하다. 이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다. 단위별로 자유롭게 질의 해주시면 되겠다.

사범.정: 사범대 학생회장이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따로 2학기때 생각하고 계시는 행사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쭙본다.

성평등위원회 인준후보자: 사실 제가 계획되어있던 위원장 위임이 아니고 이게 현임 성평등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면서 제가 맡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따로 계획해놓은 사업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지만 저희 성평등위원회가 이미 1학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사업을 다 마스터플랜에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2학기 사업도 계획되어있는 사업을 잘 수행을 하고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하다.

부총: 또 질의 있으시면 단위 밝히고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청문은 이걸로 마치겠다. 후보자께서는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바로 퇴장하셔도 된다.

성평등위원회 인준후보자: 네 감사하다.

부총: 간호대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셨는지 혹시?

간호.정: 아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부총: 네 괜찮다. 투표 진행하기 전에 인준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나 혹은 지금 인준 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받겠다. 그러면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팅창에 의결명을 올려드리면 찬성, 반대,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되겠다. 혹시 표결 안한 단위 있는지?

약학.정: 저희 약대 기권이다.

부총: 네 오늘 출석단위 11곳이고 찬성 10표, 기권 1표, 반대 0표로 성평등위원장 송지현 후보자를 인준하도록 하겠다. 네 고생 많으셨고 지금 준비한 논의안건은 모두 마쳤고 기타 안건에서 몇 가지 설명 드리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 및 등록금환불 요구 관련

- 각기 교학처, 기획처에 공문 발송 완료
- 각 부처별 공문 확인 여부, 협의 계획 관련 상시 파악 예정
- 총학생회에서 관련 보고물 게시 예정

2. 재정정보 결의안 전달 관련

- 이번 주 초 행정부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협의

3. 가을축제 진행 단과대 협력요청 * 별도 설명

부총: 먼저 학사 요구와 등록금 환불 요구 관련 현황은 내일부터 업무가 재개되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내일부터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또 재정정보 결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행정부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학생지원팀과 계획했다. 원래 제가 지난주 말에 전달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다. 이점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부탁 드리겠다. 그리고 가을축제 진행 관련되서 단과대에 협력요청을 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저희 총학생회 이번 가을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두 가지 정도의 콘텐츠에 단과대 협력이 필요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개폐회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개회공연에서 영상으로 단위별 깃발 입장식이나 혹은 퍼레이드를 하는 영상을 찍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은 단위별 깃으로 중운위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거나 어려우시다면 단위별로 한분씩 선발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새로 진행하게 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단과대간 음악 대항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축제 기간 전에 단과대별로 예선전을 통해서 단과대별 우승자 즉 본선 참가자를 결정하게 되고 본 축제 기간 중에 단위별로 선정된 우승자가 모여서 본선 공연을 하게 된다. 이후에 학우 실시간 투표로 우승자 및 우승단위를 선정하게 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투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금 단위별로 명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단위 간 투표 영향력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투표방식을 계획 중에 있고 원칙은 일단 소속단위 참가자의 투표가 불가하게끔 하려고 하고 또 단위별로 투표 창구를 개설을 해서 소속단위 창구로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단위별로 최고로 득점한 타 단위와 최저로 득점한 타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위들을 전부 나열해서 10점부터 1점을 배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단위별로 1점 득점자부터 10점 득점자까지를 발표하게 되고 전체 단위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최고로 득점한 단위가 노래 대회를 우승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협조 요청 사항은 일단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과대별로 예선전을 진행을 해야 한다. 예선의 방식 혹은 예선을 진행하지 않고도 우승자를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만 일단 단위별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축기단과 단과대가 합동으로 협력을 해서 단위별 예선전을 진행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예선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해당 단위의 참가자로서 본선에 진출하게끔 현재 계획이 되어있다. 두 번째 협조 요청사항은 본선 공연 중에 단과대별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합산해서 단과대별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아까 개폐회식 공연과 동일하게 중운위원분들께서 직접 발표자로 화면에 나와 주시거나 그게 도저히 어려우실 경우에는 한분을 선정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일단 해당 내용은 오늘 회의 자리를 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추후에 정식으로 각 단위에 협조 요청문을 전달하고 개별로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여쭙볼 예정이다. 오늘 참석 안한 단위도 있으므로 개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게 있는데 협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거절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다.

부총: 일단 단위별로 아예 개별적으로 연락할 때 의견 말씀해주시면 된다.

간호.정: 간호대도 질의가 있는데 협력 요청의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전 단위 참여가 있을 때 되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예선도 그렇고 단위에서 계속 축제에 참여를 하고 진행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계획인지?

부총: 네 지금 구체적으로 축제 틀 안에는 들어가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단위별로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축기단에서 단위의 이름만 빌려서 축기단에서 예선과 관련 실무를 진행 할 수도 있고 단위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단위에 협력 요청을 드리는 건 예선전과 참가자 선발까지를 지금 부탁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이 진행하려는 목적은 저희가 모든 단위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인 만큼 절차도 복잡하지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단위별 소속감이라든가 혹은 단위별 경쟁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도입해서 조금 더 구성원간의 소속감과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행사이다. 오늘은 이정도로 설명드리겠다. 일단 준비한 안건 및 설명은 모두 끝났는데 상정하고 싶으신 의견이나 기타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사범.정: 사범대 기타로 질의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따로 여쭙봤던 내용들은 혹시 전달이 됐는지?

부총: 시설이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은 지금 저희 요구안에는 이미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번 주 중

에 주무부서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사범.정: 네 감사하다.

부총: 더 질의 있으신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다들 고생 많으셨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